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2월 26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 교통정책팀장 유숙임 ☎440-3851 • 담당자 차영주 ☎440-385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인천시민의 교통이 안전하고 편리해 집니다

- 26일, 유정복 시장 주재 ‘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열려 -
 - GTX-B, 도로 건설 등 철도·교통망 확충에 주력 -
 - 버스 준공영제 정비, 인천2호선 증차, 공항고속도로 상부통행료 지원, ITS 교통체계 등 시민 교통편의 높일 것 -

인천시의 도로, 철도 등 교통망 구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첨단교통시스템과 편의·안전 시설물이 확충되면서 인천시민의 교통편의도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12월 26일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복지 실현’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주요 거점 연결 및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도로망 구축, ▲시민중심의 친환경 버스정책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구현, ▲지속가능한 미래 교통환경 조성,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건설 행정서비스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5대 추진전략별 세부사업을 살펴 보면, 우선 ‘주요 거점 연결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도로망 구축’을 위해 인천역~구로역 간 ▲경인 전철 지하화 사업은 내년 초 추진전략 수립용역이 시행에 들어간다. ▲GTX-B 사업은 각종 철도망 확충과 ▲영종 ~ 신도 평화도로 건설, ▲거침도 ~ 약암리 간 도로 개설 등 도로망 확충에도 주력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 ‘시민중심의 친환경 버스정책 구현’으로 대시민 교통 서비스 향상은 물론 친환경 도시 조성도 앞당긴다. 내년 상반기 중 ▲버스 준공영제 제도를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함과 더불어, 제도의 투명한 안착을 위해 ▲준공영제 정산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친환경 저상버스(전기, 수소) 54대 도입, ▲버스정류소 승강장 및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시민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시설 기능도 확대한다.

세 번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 교통안전 시설과 문화조성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구현’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전동차 증차 ▲도시철도 역사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등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영종 지역 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할인제공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공항고속도로 상부통행료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교통수요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통정책도 발굴해 시행한다.

네 번째, 미래지향적인 첨단 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미래 교통환경 조성’을 준비한다.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

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기반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년 하반기 본격시행해 2024년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한다. 또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해 미래 지향적인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버스정보안내기(BIT) 확충(188대), ▲교통약자 보호 신호기 설치(73개소)를 확대해 시민편익은 물론 안전도 한층 두텁게 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건설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특장차 22대 신규 증차, ▲운전원 등 운영인력 25명 증원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높이고, ▲택시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택시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8,081면이 조성되고,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교통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주변 여건 변화에 민감하므로 격의 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통 관련 사업은 큰 사업들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속도전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요약본(교통건설국)

【전략 1】

- 주요거점 연결 및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도로망 구축

- ①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일반철도 확충 (핵심)(신규)(혁신)(공약)
- ②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 확충 (핵심)(신규)(혁신)(공약)
- ③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핵심)(협업)

【전략 2】

- 시민중심의 친환경 버스정책 구현

- ① 준공영제 제도 개선 (핵심)(혁신)
- ②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확대 (핵심)(공약)
- ③ 인천형 표준연비제 추진 (주요)
- ④ 버스정류소 승강장 확충 (주요)

【전략 3】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구현

- 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핵심)(공약)
- ②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 (협업)(주요)
- ③ 시민 생명 지키는 교통안전시설 강화 (핵심)(혁신)
- ④ 교통비 지원으로 시민부담 완화 (주요)

【전략 4】

- 지속가능한 미래 교통환경 조성

- ①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핵심)
- ② 버스정보안내기(BIT) 구축 (핵심)
- ③ 교통약자 보호 신호기 설치 (핵심)
- ④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핵심)(신규)

【전략 5】

-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건설 행정서비스 확대

- ①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향상 (핵심)(공약)
- ② 택시경영 및 서비스 개선 (핵심)(혁신)(공약)
- ③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핵심)
- ④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핵심)